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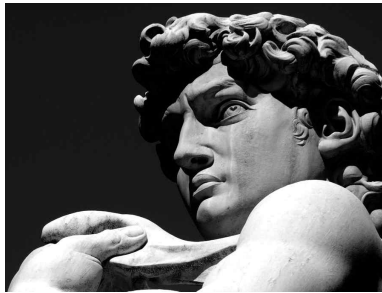
## 제2강 - 웃음이 지혜와 결합된 즐거운 학문

이 동 용 (철학아카데미)

### 1. 밀물과 썰물의 법칙

세상은 다양하다. 이 생각이 현대를 열었고 이끌었다. 다양성이 현대 철학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성엔 서로 다른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이성적 결론이 문제다. 인생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실도 없다”(인간적, 25쪽)고 했다.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신의 이름으로 대변될 수 있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조차도 다르게 해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 어떤 사물 하나를 사실이라고 단정하게 될 때 신념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하지만 이런 “신념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인간적, 391쪽)이 될 때가 많다.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에의 의지” 내지는 “진리에의 사랑”(31쪽)이었다. 진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 눈빛은 미켈란젤로 Michelangelo(1475-1564)가 보여주는 르네상스인의 강렬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비드의 눈빛을 닮아 있다고나 할까. 진리 앞에서 건방지게 짝다리 짚고 서 있는 자세라고나 할까. 아니면 구스타브 모로 Gustave Moreau(1826-1898)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신화를 재현하여 보여주는 상징주의적 눈빛을 닮았다고나 할까. 그림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향한 저항의 눈빛이 너무도 허무주의적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그 어떤 진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수많은 질문으로 검증을 거듭한다. 그 모든 노력은 진리 앞에서 삶을 변호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1501-1504), 피렌체.



구스타브 모로의 <프로메테우스>(1868), 파리.

“어쩌면 진리는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가진 여자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녀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바우보가 아닐까?”(31쪽) 진리는 자신의 바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를 가진 여자와 같다. 숨길 게 많은 음탕한 여자와 같다. 그런 존재에게 열정을 쏟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것은 시간낭비다. 진리에의 사랑에 빠져 콩깍지가 씌었다면 이제는 그 눈에 드리운 콩깍지를 벗겨내야 할 때가 되었다. 닫힌 눈을 뜨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삶의 현장을 변호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진리는 바우보처럼 숨길 게 많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연스런 여자일 뿐이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비너스와 같은 여자일 뿐이다. 지금과 여기를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는 온갖 것들에 대해 허

무주의는 거부의 뜻을 드러낸다. 그것도 본능적으로.

존재의 목적을 가르치는 교사, - 선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든 악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든, 인간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단 하나의 과제는 인간 전체로서나 개별적인 인간으로서나 인간 종족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사실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단지 이 본능보다 더 오래되고 강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없으며, 이 본능이 우리 종족과 무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시안적 안목에서 그들의 이웃 사람들을 유익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간단하게 구분하곤 한다. 그러나 넓은 안목에서 인간 전체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하면 이처럼 간단한 구분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 심지어 가장 해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종족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가장 유용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65쪽)

어느 시대에나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존재의 목적을 가르치는 교사가 존재했었다.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니 읽혀지기가 힘든가?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라. 삶의 목적을 가르치는 교사가 살았었다. 사는 게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는 교사가 모든 시대에 살았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시대마다 달랐다. 같을 수가 없다.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끊임없이 변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다라는 대양이다. 삶의 목적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어도 삶 그 자체는 늘 같은 모습을 하고 뒤로 물러서 있을 뿐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일컬어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일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근시안적 안목"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서슴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사랑과 증오, 편애와 혐오는 극단적으로 진행된다. 극단성!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근시안적 안목으로 그들의 이웃 사람들을 유익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간단하게 구분하곤 한다." 호불호가 분명할수록 단순한 사람이다.

물론 니체도 사랑을 말할 때도 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다. 허무주의 철학이 사랑을 필요로 할 때는 허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주체를 사상가로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적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대의 사상에 반대될 수 있는 그 어떤 생각이든 억누르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 침묵하지 말라! 이것을 맹세하라!"(아침, 311쪽) 맹세할 수 있는가? 니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인간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랑은 인간의 문제이다. 삶의 문제이다. 사랑을 잘못하면 인생이 꼬이고 만다. 여자든 남자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 사랑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존재의 현상은 예상치 못한 범위로까지 번져나간다.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위해 니체가 원하는 것은 근시안적 안목이 아니라 넓은 안목이다. 멀리 바라보라는 것이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것이다. 파도를 보지 말고 바다를 보라는 것이다. 파도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뿐이다.

"그러나 넓은 안목에서 인간 전체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하면 이처럼 간단한 구분에 대해 불

신을 갖게 되고 결국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허무주의적 인식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다. 함부로 자기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다. 이성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한계는 바로 이 이성이 제시하는 간단한 구분 속에 있다. 이 이성의 통제 하에 있는 본능을 극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니체도 잘 알고 있다. “이 본능보다 더 오래되고 강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없으며, 이 본능이 우리 종족과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앞에 서 있기조차 겁나는, 즉 골리앗을 닮은 본능과 한판 승부를 예고한다. 이때 어떤 눈빛으로 마주해야 할까?

본능을 이길 수 있을까? 본능을 바꿀 수 있을까? 질문이 너무 거칠다고 느껴지면 수동적으로 물어봐도 좋다. 본능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도 니체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죽내 사내하며 매달리던 연인도 돌아서면 증오를 드러내는 게 인간이다. 아무리 좋아하던 음식이라도 그 안에서 바퀴벌레를 한번 발견했다면 그 음식 앞에 다가서기조차 힘들 때가 있다. 본능은 바뀔 수 있다! 좋다는 감정은 어느 한 순간에 싫다는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 허무주의 철학은 바로 이 본능의 변화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필요로 하는 본능은 건강에의 의지와 연결된다. “근본적으로 철학은 개인이 건강해지는 법에 대한 본능이 아닐까? 나의 대기, 나의 높이, 나의 기후, 나름대로의 건강을 두뇌라는 우회로를 통해 추구하려는 본능이 아닐까?”(아침, 413쪽) 건강한 자에게는 치명적으로 해로운 독약조차도 보약이 될 수 있다. 자신이 건강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시인과 현자에게는 만물이 친구”(33쪽)라고 했다.

그대의 최선의, 혹은 최악의 욕망들에 몸을 맡겨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아라! 두 경우 모두 그대는 인류를 위해 진흥과 선행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 물론 조소도 함께, 하지만 그대는 개인인 그대의 가장 커다란 장점조차도 전적으로 조소할 줄 아는 사람, 그대가 파리나 개구리처럼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실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히 그대의 감정에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그래야 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압으로써 진리 전체로부터 우러나는 웃음을 웃을 줄 아는 것 -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최상의 인간들도 충분히 진리의 감각을 지니지 못했고, 가장 재능 있는 인간들도 지극히 미약한 천재성밖에 지니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도 웃음에도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종족이 전부이며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명제가 인류에게 체현되어 이 궁극적인 해방과 무책임에 이르는 길이 개개인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때는 웃음이 지혜와 결합되어 “즐거운 학문”만이 남게 될 것이다. (66쪽)

니체가 염원하는 미래는 웃음에 적합한 시대이다. 웃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웃음이 지혜와 결합되어 ‘즐거운 학문’만이 남게” 된 시대이다. 모두가 즐겁게 공부하는 시대이다. 웃음에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니체는 이 모든 종류의 웃음들에서 훈련되어 있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자가 삶의 대가이다. 아무리 아픈 상처가 났어도 웃으며 견뎌내면 어떤 고통이라도 멋진 추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위의 인용문에는 특히 조소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다. 기분 나쁜 것에 대해 조소를 보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가장 기분 좋은 것에 대해서도 조소를 보낼 줄 아느냐?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미래의 능력이다. “그대는 개인인 그대의 가장 커다란 장점조차도 전적으로 조소할 줄 아는 사람, 그대가 파리나 개구리처럼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실

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히 그대의 감정에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인간은 미래의 인간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인간이다. 마치 초인처럼. “위버멘쉬가 존재한 적은 아직 없다.”(차라, 153쪽)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철학이기도 하다.

“충분히 그래야 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앎으로써 진리 전체로부터 우러나는 웃음을 웃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허무주의 철학이 요구하는 지혜요 능력이며 힘이다. 니체는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이미 자신에게서 웃음을 배우라고 가르쳤다. “나는 웃음이 신성하다고 말했다. 그대들 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내게 배워라 - 웃음을!”(비극, 23쪽) 니체에게 웃음은 유용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권태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이며 무상함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이다. “사람들은 노여움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살해를 한다.”(차라, 518쪽) 그러니까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자는 최상의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금까지는 이런 허무주의적 웃음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웃음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저 “지극히 미약한 천재성밖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니체의 판단이다. “아마도 웃음에도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느낌표까지 찍혀있다. 그만큼 힘을 줘서 읽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살았다. 미소 한번 양심의 가책 없이 마음껏 짓지 못하고 살았다. 니체는 이제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개인에게 웃음으로 충만한 삶을 선사하고자 한다. 웃음이 신성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철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즉 “두뇌라는 우회로를 통해”(아침, 413쪽)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하는 것이다. 바보 같은 웃음이 때로는 건강의 징표라고. 그런 웃음이 건강한 웃음이라고.

미래! 그때가 되면 “궁극적인 해방과 무책임에 이르는 길이 개개인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게 될 것”이라고 니체는 확신한다. 진정한 자유정신이 실현되는 시대가 바로 그가 염원하는 미래다. 그의 이상향이다. 모두가 하나가 된 세상이다. 그때는 “종족이 전부이며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명제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느 하나의 윤리가 지배하는 따위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윤리에 지배받는 사회는 닫힌 사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하나의 윤리가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면 인류가 멸망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모든 윤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반자연적인가!”(68쪽) 몰락한 모든 시대와 사회는 늘 그렇듯이 하나의 윤리에 얽매어 있었다.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 다른 것에 의해 물러나게 된 것이다.

짧은 비극은 결국 언제나 영원한 현존재의 희극에게 자리를 물려주거나 뒤로 물러난다. 아이스킬로스의 표현을 빌리면 “한없는 웃음의 파도”가 이 비극들의 가장 위대한 주인 공들조차 압도해버린다. (68쪽)

파도는 태곳적부터 치고 있었을 것이다. 물러오고 밀려간다. 수도 없이 오고 간다. 아플 때는 그 아픔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안목”으로 보면 그 또한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현존재의 희극”은 영원하다. 허무주의적 발언이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다. 늘 지나고 나면 웃게 된다. 같잖아서 웃기도 하고 황당해서 웃기도 한다. 그 순간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던 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울음이 웃음으로 바뀔 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다. 비극이 희극으로 대체될 때 삶은 살 만한 것이 된다. 비극과 희극의 교체는 끊임없이 오고 가는 파도처럼 이루어진다. “아이스킬로스의 표현을 빌리면 ‘한없는 웃음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고 간다. 파도 소리는 웃음 소리다.

웃음으로 대체된 울음만이 가치 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웃음으로 대체되지 못하는 울음은 종말을 의미할 뿐이다. 삶에의 의지가 사라졌다면 삶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울음이 지배하는 삶, 즉 비극적인 삶이 지속될 때 그런 삶은 지긋지긋한 것이 되고 급기야 죽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든다. 죽음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만다.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서 죽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웃음을 가르치고자 한다. 울음을 똑 그치게 하고 눈물을 매몰차게 자르게 하는 비결을 일러주고자 한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내 말을 이해하는가? 그대들은 밀물과 썰물의 이 새로운 법칙을 이해하는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시대가 있다! (69쪽)

이것이 제1부 첫 번째 잠언의 마지막 구절이다. 니체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그대들은 내 말을 이해하는가?”하고. 광기의 세계로 접어들기 며칠 전에 완성하는 《이 사람을 보라》의 마지막 구절도 이랬다. “- 나를 이해했는가? -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 사람, 468쪽) 얼마나 설렘을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을까? 머뭇거림이 원히지고 침묵의 기다림이 허무주의 철학의 대미를 장식한다.

얼마나 이해되기를 바랐을까. 평생을 치열하게 집필한 철학자가 광기의 세계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에 가졌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마치 해변 어느 한 구석에 알을 낳고 힘겹게 바다로 돌아가는 거북이의 근심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녀석들이 자신이 알을 깨고 세상에 제대로 태어날 수나 있을까?’하고 걱정을 하면서 말이다. “디오니소스 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망아의 원리와 사랑의 공각지! 두 개의 서로 다른 물결은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또 간다.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원리는 아폴론적 원리와 “짜짓기”(비극, 29쪽)를 해낼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킨다.<sup>1)</sup> 두 원리의 결합과 공존이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다. 이 디오니소스가 오로지 하나의 윤리만을 요구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 대항하는 이념이 되는 것이다. 움짱달짝 못하게 못이 박히면 안 된다. 그것은 구속일 뿐 자유가 아니다. 니체의 디오니소스는 파도의 원리와 같다. “밀물과 썰물의 이 새로운 법칙”만이 니체의 허무주의를 대변한다. 허무주의는 도래해야 하고 또 극복되어야 한다. 허무주의의 도래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때 “어떤 하나의 윤리가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오로지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문이 꼭꼭 닫힌 사회이다. 그곳에는 독재만이 있을 뿐이다. 탄력성을 상실한 늙은 사회이다. 위기는 밀물과 썰물을 만들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중세의 빙하 속에서 살고 있”(반시대Ⅲ, 427쪽)지 않은가 하고 말이다. 뽕뽕 얼어붙은 얼음으로는 절대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만약 아직도 빙하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 들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즐거운 학문》이 들려주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해빙기의 언어로 씌어진 것처럼”(23쪽)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소식이다.

## 2. 악에 대한 새로운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 있다. 자신의 의식이라는 틀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정신들조차 오직 그들의 다섯 손가락 넓이만큼의 경험을 가질 뿐이다.

1) , 이동용: 니체와 함께 춤을, 위의 책, 89쪽 이후.

바로 그 옆에서 그들의 생각은 멈춘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무한히 텅 빈 공간과 어리석음이 시작된다.”(아침, 418쪽 이후) 자기가 아는 것 밖에서는 어리석음이 시작된다. 이것이 이성적 존재의 한계다. 그저 “다섯 손가락 넓이만큼의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려 한다. 그 알량한 경험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선악으로 구분하려 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당신을 낯선 눈길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저울을 가지고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저울질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품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소할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이나 반대의 궁극적이고 확고한 근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의식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근거에 대해 사후에나마 생각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이런 저런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9쪽 이후)

어머니에게 묻던 어린 소녀의 질문을 기억하고 있는가? 서문에 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자.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고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물으며 말했다. ‘저는 그것이 점잖지 못한 일 같아요.’ - 철학자들을 위한 암시!”(31쪽) 니체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며 떠들어대는 소위 믿는 자들의 신앙심을 꼬집어 말한 것이다. 염치도 없다는 것이다.

또 니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진리에의 의지, 진리에의 사랑에 빠진 이 젊은이들의 광기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31쪽)고 말한 바 있다. 진리를 입에 담고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만큼 곁고러운 존재가 또 있을까.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위의 인용문에는 저울이 등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저울 위에 사물을 올려놓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판단을 한다. “이러한 저울질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파렴치하다. 판단을 보류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뻐긴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런 저울질은 “경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기분을 상하게 할 뿐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허무함을 느끼는 훈련을 요구한다. 허무함을 느끼기 위해서 과거의 것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의 가치는 오로지 거기에 있을 뿐이다. 허무한 느낌은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 즉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새로운 것을 지향하게 만든다. 허무함이 내면을 지배하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니체의 진보 사상은 늘 과거의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의 모든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를 묻게 될 때 먼저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을 때 자기 부모의 인생을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다. “부모의 성격과 성향에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불협화음은 어린아이의 본질 속에서 계속 울리게 되고 그의 내면적인 고뇌의 역사를 형성한다.”(인간적, 323쪽) 부모가 힘들어 했던 것이 무언인지를 인식하면 자신의 문제가 보인다. 부모가 멈춰 선 곳에 도달하면 자기 앞날이 보인다.

그래서 조상들의 삶을 배우고 기억해두는 것도 가치가 있다. “조상들의 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재능을 그 자체로 계속 단련하여 전혀 새로운 그 무엇으로 바꾸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성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그 어떤 참견에서든 완성의 가능성을 스스로 앗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담은 '너는 어느 길을 말을 타고 달릴 것인가? 그 길은 너의 조상의 길이 다'라고 말한다.”(인간적I, 419쪽 이후) 과거의 것을 알아야 창조가 가능하다. 과거의 것을 모르고 창조한다는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으면 기존의 것에 대해 이미 대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족 보존, - 강력하고 극악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인류를 가장 많이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들은 잠들어 있는 정열에 -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는 정열을 잠들게 한다 - 거둬 불을 붙이고, 비교와 모순에 대한 감각, 새로운 것, 모험적인 것, 시도되지 않은 것을 향한 욕구를 거둬 일깨움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의견에 의견을 대립시키고 모범에 모범을 대립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경계석을 무너뜨림으로써, 특히 신성하게 여겨진 것을 훼손함으로써, 그러나 또한 새로운 종교와 도덕을 통해!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와 설교자에게는 동일한 "악의"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정복자의 평판에 손상을 가져온다. 비록 이 악의가 매우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어 즉시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평판에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정복하고, 낡은 경계석을 무너뜨리고, 낡은 신성함을 전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어떤 경우이건 악한 것이다. 낡은 것만이 선하다! 어떤 시대에나 선한 사람들은 낡은 사상을 깊이 파내려가 열매를 수확하는 정신의 경작자들이다. 그러나 모든 땅은 결국 이용되면서 수명을 다하게 되고, 악의 쟁기가 언제나 새로이 도래한다. 오늘날 근본적으로 잘못된 도덕적 교설이 생겨나 영국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은 "합목적성"과 "비합목적성"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것이며 선이라 불리는 것은 종족을 보존하는 데 유익한 것이고 악이라 불리는 것은 종족에 해로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실은 악한 충동도 선한 충동만큼이나 합목적적이고 종족을 보존하는 데 유익하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 다만 그 기능이 다를 뿐이다, (73쪽 이후)

창조 정신은 과거의 것을 전복한다는 점에서 악한 것이다. 기존의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악의 원리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복하기 전에 그 전복의 대상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낡은 것만이 선하다!"고. 공자도 '온고지신(溫故知新)<sup>2)</sup>'이란 말을 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것에 능통한 자만이 '가이위사의(可以爲師矣)', 즉 선생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니체의 말로 표현하면 "그대의 사상에 반대될 수 있는 그 어떤 생각이든 억누르지 말고 그대 자신에게 침묵하지 말라!"(아침, 311쪽)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이에 속한다. 자기 자신에게 맞설 수 있는 자가 허무주의적이다.

"새로운 것은 어떤 경우이건 악한 것이다." 이 말에 대해 감정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자기 말이 될 때까지 읽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악한 것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체는 잠시 영국의 도덕적 교설을 언급한다. 선에 대한 판단을 합목적성으로, 또 악에 대한 것을 비합목적성으로, 그리고 선이라 불리는 것은 종족에 유익한 것으로, 또 악이라 불리는 것은 종족에 해로운 것이라 말한다. 지극히 이분법적 교설이 아닐 수 없다. 니체의 허무주의는 이런 사고방식을 극복하고자 한다. 악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악한 것이 아니

2) : 공자의 논어, 스마트북 재판/2013, 62쪽.

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독서를 멈추고 잠시 명상에 잠겨야 한다. 새로운 것은 늘 악한 것이다! 악한 것에 대한 친근감이 선다면 이제 다시 독서를 계속해도 된다.

“어떤 시대에도 선한 사람들은 낡은 사상을 깊이 파내려가 열매를 수확하는 정신의 경작자들이다.” 누군가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이 문장을 읽혀주고 싶다. 수명을 다한 땅은 “악의 쟁기”가 갈아엎어야 한다. 그래야 땅은 다시 숨을 쉬며 생명의 터전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정신의 경작지도 마찬가지다. 수명을 다한 정신은 악의 쟁기가 새로이 갈아엎어줘야 한다. 그래야 정신은 다시 숨을 쉬며 생명의 원인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초대>라는 시에서 니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 일곱 가지 오래된 것들이 / 내게 일곱 가지 새로운 용기를 주리라”(37쪽)고. 오래된 것과 낡은 것은 같은 의미다. 그것들은 제대로만 다루면 용기를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선과 악은 취함과 제거의 문제가 아니다. 악한 세상을 등지고 선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이분법적 논리에 근거한 중세적 발상에 불과하다. 세상은 오히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모두 필요로 한다. 선과 악을 넘나들면서 건강해지는 것이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선과 악이 균형을 잡아줄 때 세상은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선과 악을 모두 손에 들고 저글링할 수 있을 때 삶의 대가가 되는 것이다. 선과 악 모두 즐거운 학문의 대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답만을 고수하는 소위 웅졸한 이성주의자들<sup>3)</sup>은 합리적인 준칙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악이라 불렀고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선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악은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악한 정신이야말로 정열에 불을 붙이는 힘으로 작동해왔다. 전의(戰意)를 불태울 때는 악의 힘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양심의 가책 따위도 필요치 않았다. 악을 추구하는 것도 선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했던 것이다. 악을 선만큼이나 “합목적적이고 종족을 보존하는 데 유익하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다.

선만을 지향하는 자가 편견에 휩싸인 자이다. 지금까지도 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이 있다. 싫다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말해도 된다. 본능적으로 악은 나쁘고 선은 좋다고 말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감정 상태와 이런 본능적인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자 한다. 그런 가치관에 저항하고자 한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낡은 신성함을 전복”하는 곳에 허무주의 철학이 있다.

천재는 늘 편견에 맞선다. 천재는 언제나 고정관념과 싸운다.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는 정열을 잠들게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완전한 국가가 이루어진다면, 인류는 너무나 힘이 빠져 천재를 더 이상 산출할 수 없을 것이다.”(인간적, 236쪽) 질서정연한 사회, 완전한 국가 등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무장한다. 그런 사회와 국가는 변화를 거부한다. 전통과 문화를 고수하려고만 한다. 소위 말잘 듣는 국민만을 원한다. 이때 “개인은 결국 국가에 의해 악화되고 나아가 해체”(같은 책, 237쪽)되고 만다.

“의견에 의견을 대립시키고 모범에 모범을 대립”시키는 자가 세상을 바꿔왔다. 모든 대립정신은 새로운 것을 이끌어냈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립정신이 선하거나 착하지 않다는 소리에 대해서는 생소한 느낌이 들 수 있다. 그 대립정신이 악하다는

3) 들어 쇼펜하우어는 칸트를 도덕적으로 웅졸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칸트가 아무런 애착이나 순간적인 흥분 없이 순전히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준칙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의 조건으로 삼는 한, 그는 도덕적인 웅졸함이 생기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130쪽).



소리는 더더욱 낮설기만 하다. 바로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직면한 문제 상황이다.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 도대체 무엇이 당연하다는 말인가? 무엇이 진실이라는 말인가? 이런 의혹을 품고 당연한 것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것을 바라보면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입에 담는 자들은 일종의 의무감마저 보인다. 그것을 옹호하려는 의지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적인 의무를 요구하게 된다.

무조건적 의무, -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언어와 음성, 웅변적인 몸짓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 절반의 성공이란 있을 수 없는 혁명가, 사회주의자, 그리스도교 교도권 아니건 모든 참회의 설교자들은 모두 항상 "의무"에 대해서, 그것도 무조건적 성격을 지니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이 없으면 위대한 파토스에 대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정언명법을 설교하는 도덕철학에 다가가거나 마치니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것을 상당부분 받아들인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그 자체로서 숭고한 계명을 토대로 하여, 자신을 그 계명의 봉사자이자 도구로서 느끼고 그에 헌신하려는 것이다. [...] 부끄러움 없이 복종하고, 이 복종을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무조건적 당위의 원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세련된 방식의 복종은 정언적 명법을 고수하려 하며, 이 점에서 의무로부터 무조건적 성격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의 불구대천의 적이 된다, 체면이 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면뿐만은 아니다, (74쪽 이후)

세상에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무조건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나의 정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려 들지 않는다. 의무감이 열정을 보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의무감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정언명법을 고수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감을 열정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혁명가, 사회주의자, 그리스도교 교도권 아니건 모든 참회의 설교자들은 모두 항상 '의무'에 대해서, 그것도 무조건적인 성격을 지니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들에겐 의무가 만능열쇠처럼 보일 뿐이다.

혁명가, 사회주의자 그리고 참회의 설교자들! 이들은 "절반의 성공"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완전한 정복만을 지향한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런 사람만큼 독단적인 사람이 없다. 무조건적 신뢰는 늘 일방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숭고한 계명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제단 위에 세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계명의 봉사자이자 도구로서 느끼고 그에 헌신하려는 것이다." 그의 헌신 정신은 돌격대장의 그것처럼 앞만 바라보고 전진을 거듭하려 한다. 대화와 타협은 그의 것이 아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의무감이 그렇게 만든다.

혁명가, 사회주의자 그리고 참회의 설교자들! 이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복종한다. 자신이 세웠거나 타인이 세운 정언명법을 신격화하고 거기에 얽매인다. "무조건적 당위의 원칙을 요구"하며 의무감으로 복종을 일삼는다. 복종을 하면서 체면치레를 한다. 허례허식이 따로 없다. 이들 앞에서 그들이 정언명법으로 간주하는 계명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발언이라도

하게 되면 이들은 무조건적인 의무감으로 파토스적 행위를 보이게 될 것이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허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당연한 것에 대한 의혹의 길을 열어놓고자 한다. 신격화된 정언명법에 질문의 여지를 남겨놓고자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수치심을 부여하고자 한다.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자 한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앙에서 생겨나는 선한 충동은 오히려 이성이라는 땅을 굳게 만들고 만다. 이런 땅에서 다시 경작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이 “악의 쟁기”(74쪽)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때 “악한 중동도 선한 충동만큼이나 합목적적이고 종족을 보존하는 데 유익하며 필수불가결”(같은 곳)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악, - 최고의 생산적인 인간과 민족들의 삶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무가 악천후나 폭풍을 겪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늘 높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운이나 역경, 증오, 질투, 고집, 불신, 냉혹, 탐욕, 폭력 등은 이것들이 아니라면 덕의 위대한 성장이 불가능한 유익한 환경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나약한 천성을 지닌 자를 멸망케 하는 독은 강한 자를 강화시킨다 - 이때 강한 자는 이것을 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90쪽)

누군가에게는 해로운 독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강화시켜주는 이로운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독이라도 “악한 천성을 지닌 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모든 성장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들이 요구된다. 위의 인용문에는 두 개의 반어법적으로 표현된 의문문이 있다. “나무가 악천후나 폭풍을 겪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늘 높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자라날 수 없다가 대답이다. 나무가 자랑스럽게 하늘 높이 자라나려면 온갖 악천후와 폭풍을 겪어야만 한다는 얘기다. 또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운이나 역경, 증오, 질투, 고집, 불신, 냉혹, 탐욕, 폭력 등은 이것들이 아니라면 덕의 위대한 성장이 불가능한 유익한 환경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대답은 그런 것들은 유익한 환경이라는 얘기다.

불행이 닥칠 때 울 필요는 없다. 자기 인생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다. 유익한 순간이라고 판단하면 쉽게 극복이 되는 것이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운이나 역경, 증오, 질투, 고집, 불신, 냉혹, 탐욕, 폭력 등”의 개념들을 읽어낼 때 좋은 감정을 가져보라. 그러면 욕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알바트로스에게는 바람이 비상의 원동력이다.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쉽게 날 수도 없다. 그에게는 바람 자체가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이다. “오, 놀라워라! 아직도 날고 있는가? / 하늘로 솟아오르면서도 날개는 쉬고 있다니!”(18쪽) 또 “역풍을 만난 이후로 / 어떤 바람에도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행복”(37쪽)이었다.

주변의 사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편해진다. 역풍조차도 항해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저 좋다는 말만을 연일 쏟아내는 행복감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무 쉽게 사는 것 같아 남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부러움과 시기심은 이때 생겨나는 것이다. 높이 나는 새는 그렇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그저 작게만 보일 뿐이니까. 《아침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니체는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애원까지 했었다. “잊지 말 것. -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욱 작게 보인다.”(아침, 422쪽) 타인에게 더 작게 보이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오히려 즐길 줄 알면 그만인 것이다. 그때 알바트로스처럼 “질투조차 동정”(18쪽)할 수 있게 된다.

### 3. 가능성으로 충만한 세대의 느린 변화 속도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사람들이 대세였다. 의무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왔다.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이 인정을 받아온 것이다. 초심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왔다. 처음처럼, 늘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답게 비춰졌다.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타일렀던 것이다. 공부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라고, 그것만이 최고라고 가르쳐왔던 것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공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삶이 공부로 해결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현실의 기에 눌러 기죽어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일상을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정언명법과 같은 "숭고한 계명"<sup>(75쪽)</sup>을 고수하는 자들은 '열정이 있으면 못 하는 게 뭘이 있겠는가!'하고 다그친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어느 영화 제목이 떠오른다.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sup>(2015)</sup>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열정도 열정 나름이다. 영화도 또 다른 열정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욕망의 불을 끄라는 불교의 이념도 결국에는 그 끄려는 의지로 충만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무<sup>無</sup>와 공<sup>空</sup>으로 만들려는 또 다른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진<sup>精進</sup>도 삼보일배<sup>三歩一拜</sup>도 금욕고행<sup>禁慾苦行</sup>도 모두가 일종의 규칙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 틀을 전제한다. 거의 모든 사찰이나 수도원 생활은 그래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그것이 해탈, 즉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열정도 열정 나름이라는 말이다.

니체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대가 있다!"<sup>(69쪽)</sup>는 것을 확신하는 철학자다. 지금까지는 일상의 의미가 너무도 컸을 뿐이다. 하지만 생철학자 니체가 염원하는 미래는 다가오고 있다. 미래는 임박했다. 돈을 열망하고 돈이 주인행세를 하고 돈의 노예가 되었던 현대는 이제 거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다. 이제 현대 이후를 논할 때가 되었다. 현대 이후! 이 미래의 시대에는 다른 이념과 세계관이 요구된다. 행복의 기준을 부의 정도로 책정하던 현대는 이제 위기에 봉착했다. "물론 돈도 약간은 중요하지만,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sup>(인간적Ⅱ, 178쪽)</sup> 혹은 "직업은 삶의 척추이다."<sup>(인간적Ⅰ, 414쪽)</sup> 이런 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때가 온 것이다. 직업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돈이 정신을 지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의 이념으로 굳어질 때 현대는 극복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우리의 분출"이라는 잠언을 쓰고 있다.

우리의 분출, - 인류가 예전의 단계에서 획득한 무수히 많은 것들, 그러나 너무 미약하고 미숙한 단계에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획득했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오랜 후에, 아마도 수세기가 흐른 후에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사이에 그것이 강하고 성숙해진 것이다, 이런저런 재능, 혹은 이런저런 덕이 결여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여러 시대가 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손자나 증손자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들은 할아버지 안에 들어 있었지만, 할아버지 자신은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을 태양 아래 드러내 보일 것이다, 때로는 그전에 이미 그의 아들이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경우 아버지는 아들을 갖게 된 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숨겨진 정원과 식물을 갖고 있다, 달리 비유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분출하게 될 활화산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 시간에 혹은 먼 후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활화산이다. 활동 중인 화산이다. 가스가 차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이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터질 운명이라는 것이다. 깨달음은 이런 식으로 의식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인식의 순간은 늘 갑자기 다가온다. 퍼즐도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다가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 갑자기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조각들의 조합을 맞춰내는 것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마치 활화산이 터지듯 엄청난 속도가 붙을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활화산이다. 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차근 차근 성숙해지는 법을 익혀야 한다. 물론 “갑자기 오랜 후에, 아마도 수세기가 흐른 후에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인식은 늘 후에 일어나는 법이니까. 과거의 사진을 살펴보면 이런 인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변화가 인식된다. 시대의 변화도 이와 같다. 지금 당장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모른다. 오리무중이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삶의 짐은 무겁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과거의 삶이 보인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느낌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 의식화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갖게 된 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어떻게 앓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아들에게서 관찰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면 늘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낡은 것만이 선하다!”(74쪽)는 주장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그 낡은 것에 악의 쟁기를 들이대려 한다. 생명력을 상실한 선을 악의 힘으로 다시 되살리려는 것이다. 드러나려면 터져야 한다. 용암은 흘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 시간에 혹은 먼 후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신조차도.”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절망의 소리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이것이 허무주의의 목소리다.

천천히. 느리게. 여유롭게. 허무가 오고 극복될 때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타인의 도움도 이럴 때는 해로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사도 의사도 멀리하고 살아야 한다. “가능하면 의사 없이 산다. - 병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것보다 더 경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아침, 291쪽) 이것이 허무주의적 삶의 방식이다. 천천히 면역력을 키워가면서 세상에 적응할 일이다. 그것이 삶의 대가가 되는 비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정열적이면서도 느린 정신의 템포인 안단테의 발전 속도가 반드시 필요하다.”(80쪽) 허무주의 철학은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29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4. 사람들과의 지혜로운 관계 형성

세상살이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다. 모든 것이 내 뜻 같이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긍지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달하게 된 경지를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두가 잘 낫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부대끼며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아이들도 어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잘 들을 때는 귀엽다. 하지만 자기 의견이 형성되고 반항하는 나이가 되

면 그보다 미운 자식이 없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가까이 알고 나면 실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낄 줄도 알아야 한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호전시켜줄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신비감은 호감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기도 하다.

멀리서, - 이 산은 그것이 거느리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매혹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을 수백 번 읊조린다면 우리는 터무니없게도 그 산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 이런 매력을 지닌 산이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매혹적인 존재일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산을 오르면 우리는 곧 실망하고 만다, 갑자기 이 산과 우리 주위의 풍경 전체가 마법에서 풀려난 듯 우리 발밑에 있게 된다, 선의와 마찬가지로 위대함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특히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감화력을 지닌다, 그대 주위에도 스스로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만, 스스로를 견딜 만하고 매력적이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인식은 그들에게는 금물이다, (87쪽 이후)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자기인식은 그들에게 말리고 싶은 일이다'라고. 자기를 알고 나면 실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멀리 있을 때 보기 좋은 사람, 즉 가까이 지내 기에는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잔인한 소리는 없다. 적당히 눈감아주는 것도 아량이다. 적당히 거짓말을 해주는 것도 배려정신이다. 적당히 칭찬을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분명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멋진 풍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멋진 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말이다. 그 산 때문에 주변의 경관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 분위기 메이커라고나 할까. 그 사람이 있어야 전체가 사는 그런 사람이 분명 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친해지고 싶지 않을 때이다. 꼭 필요는 한데 친해지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가 관건이다. 너무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아예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기 때문이다. 알고 나면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을 오르면 우리는 곧 실망하고 만다." 이런 실망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만다. 호감이 변하여 역겨움으로 진전되고 나면 그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진다.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 운명이라면 그것은 크나 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적당한 거리, 아예 멀리서 바라봐주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때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서로가 서로의 매력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매혹적인 존재일 것이라고 믿"으며 살면 그만인 것이다.

물론 착각하며 살아도 안 된다. 알 건 알아야 한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하는 인식이 서면 그것을 명심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할 때가 있다. 그때는 바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을 때이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잘 기억해두라는 것이다. 그 기억이 적당한, 즉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게 해줄 것이다.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잠언을 읽어보자. 이번에는 가까워지고 싶은 사이다.

다리를 건너, -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경우, 우리는 자신을 위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 사람들은 애정이 담긴 감정이나 열광적이고 고조된 감정을 들키면 그것을 알아챈 사람이 마치 그들의 비밀을 들여다보거나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한 증오를 느낀다. 그런 순간에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려면, 그들을 웃게 만들거나 차갑고 짓궂은 농담을 건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그들의 감정이 다시 얼어붙어 그들은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보니 이야기에 앞서 도덕을 먼저 늘어놓아버렸다. 우리는 한때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아무것도 우리의 우정과 우애를 방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사이에는 단지 작은 다리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네가 그 다리에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 나는 네게 물었다, "다리를 건너 내게를 생각인가?" 하지만 그러자 너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게 되었다. 내가 다시금 청했을 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산과 급류, 그리고 그밖에 서로를 갈라놓고 낯설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려 해도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저 작은 다리를 기억한다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 흐느낌과 놀라움 외에는. (88쪽 이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다. 다만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는 것이 전제일 뿐이다. 작은 다리 하나! 그 하나가 문제다. 자존심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다리 하나가 문제인 것이다. 특히 좋아하지만 의도치 않게 헤어진 상황이라면 이 잠언에서 도움을 청해보라.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단지 작은 다리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이 말이 전하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만약 그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올 때는 이 말이 읽혀질 때까지 천천히 독서에 임해보자.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경우, 우리는 자신을 위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문장이다. 어느 철학서에도 이런 문장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혜가 가득하다. 자신의 감정에 수치심을 느끼는 자는 누구일까? 자기감정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자는 누구일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싶지 않은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지,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라. 그런데 그런 감정을 상대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 자신이 그 상대가 되었다고 간주해보라.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할까? 니체의 대답은 간단하다. 적당히 "위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이 다 나쁘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왔다. 모든 창조는 사실 거짓말이 아니었던가.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반하는 발상이 개척정신이 아니었던가. 니체식으로 생각하는 훈련에 임해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독서는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이 재미있다는 소리를 스스로 하게 될 것이다. "삶은 기만을 원한다. 삶은 기만을 통해 유지된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적, 11쪽) 살고 싶으면 기만할 줄 알아야 한다. 기만할 줄 아는 자만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같은 책, 14쪽) 맞는 말이다. 속이는 능력이 완성의 단계까지 올라가줘야 진정한 배우가 되는 것처럼. "위장을 지속적으로 연습함으로써 마침내 위장에서 자연적인 본성이 생겨난다. 마지막에 위장은 스스로 지양한다. 그리고 기관과 본능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위선의 정원에 열린 열매다." (아침, 258쪽) 끊임없는 위장이 본성까지도 바꿔놓는다. "이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을 거쳐 다른 사람이 된다”(29쪽)고 했다.

어리석음의 존엄성, -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금세기에 이른 것! 인간이 행해온 그 모든 것 안에는 최상의 영리함이 들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영리함은 그 모든 존엄성을 잃어버렸다. 영리함은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고상한 취미는 이러한 필요성을 범용한 것으로 느낄 것이다. 또한 진리와 학문의 전횡이 허위의 가치를 높이 끌어올릴 수도 있듯이 영리함의 전횡도 새로운 종류의 고상한 감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상하다는 것 - 이는 아마도 머릿속에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90쪽 이후)

니체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한다. 마치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특히 그것이 경계에 선 상황이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들려온다. 웃다가 울며, 울다가 웃기를 동시에 연출해내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다가 저런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런 이야기로 넘어간다. 자유자재다. 비약이 난무한다. 모순처럼 들리는 이 모든 것이 정리될 때 허무주의 철학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파도를 탈 수 있을 때 파도는 놀이의 대상이 된다.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파도가 주는 쾌감까지도 알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어리석음과 존엄성, 영리함과 일상적 평범함 등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개념들의 조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잘 어울린다. 여기에 니체의 문체가 주는 매력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양한 인상이 들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또 어떤 사람은 영리해 보인다.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소위 말하는 “고상한 취미”는 어떤 취미일까? 그것은 대부분 고전적이고 전통적이다. 기존의 모든 것은 생존해낸 영리함의 산물이다. 악전고투 끝에 살아남은 영리함의 결정체다. 결국 고상한 취미는 영리함의 전유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고상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 드는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고상한 척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고상하다는 것 - 이는 아마도 머릿속에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전 것을 따라 하기만 하고 자기 자신의 것은 없는 상황.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금세기에 이른 것”과 “인간이 행해온 그 모든 것 안에는 최상의 영리함이 들어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해야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영리함이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고상한 취미는 이러한 필요성을 범용한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영리했던 것이 더 이상 영리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변화는 느리게 도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변화가 도래하면 이전 것은 순식간에 옛것이 되고 만다. 취향이 바뀌고 취미가 바뀐다. 습관이 바뀌고 본성이 바뀐다.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사람”(29쪽)이 되고 만다. 다른 사람이 되고 나서야 이전 것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다. 마치 옛 사진을 구경하면서 느끼는 감회라고나 할까. ‘그래 그때는 그랬지~’하면서 어떤 장면은 썩스러워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긍지를 느끼기도 한다.

## 5. 착한 사람이라는 이념

도덕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자. 부모님께서 이래라 저래라를 반

복한다.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가르침이 시작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운다. 그러면서 습관도 생겨난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양심이라는 것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서면서 마음은 늘 불편함을 저버릴 수 없게 된다.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다투는 것이다.

사심 없기를 가르치는 설교자들에게, - 우리가 어떤 사람의 덕을 선하다고 부를 때, 이는 그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덕을 칭송함에 있어 결코 "사심이 없거나" "비이기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여러 덕(근면, 순종, 순결, 경건, 정의 등과 같은)이 그 덕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유해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너무 강력하고 절실하게 일어나는 충동이라서 이성애에 의해 다른 충동들과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진실로 완전한 덕을(덕을 향한 작은 충동이 아니라) 지니고 있다면 그대는 그들의 희생자인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이웃은 바로 그 때문에 그대의 덕을 칭송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근면이 시력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독창성과 참신성을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근면한 사람을 칭찬한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는" 청년을 다음과 같은 판단에 따라 떠받드는 동시에 애석해한다, "사회 전체로 볼 때, 최고의 개인을 잃은 것 역시 작은 희생에 불과하다!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욱 안 좋은 일은 개인이 생각을 달리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일보다 자신의 보존과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애석해 하는 것은 이 청년 개인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 헌신적이고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도구를 - 이른바 착한 사람을 - 사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91쪽 이후)

'아이고, 착하구나~'하고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행동이 착한 행동일까? 누가 과연 착한 사람일까? 착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하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착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를 예절학교로 보내기도 한다. 그곳에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착한 사람'은 어렸을 땐 되어야 하는 사람의 모범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땐 원하는 사람의 모범이 된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아직도 어린 것이고 반대로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면 이미 기성세대에 도달한 나이일 것이다. 즉 착한 사람에 대한 이념은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 된다. 이 이념을 다른 말로 하면 도덕이 되는 것이다. 이 이념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가 원하는 상을 교류하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라는 이념에 의한 이런 관계 형성이 어느 한쪽의 이념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기득권에 해당하는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강요할 때 생겨난다. 또 그 문제가 가시화될 때는 커가는 세대 혹은 자라나는 세대가 그런 이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저항을 하기 시작할 때이다. 세대 간의 갈등은 모든 시대에 존재했었다. 기성세대는 이것을 원하고 신세대는 이것을 원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마침내 시대가 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덕을 선하다고 부를 때, 이는 그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덕적 사고방식의 한계이다. 착한 사람을 원할 때 가지게 되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사람의 덕을 선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말할 때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된다. 스스로 누구를 향해 착하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말이다. 그 착하다고 인정받는 행동은 그 관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즉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평가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말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 흘러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허무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힘차게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자기 인생은 어디 있는가 하고 주름진 손길을 뻗으며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진실로 완전한 덕”을 실천했다면, 그것도 평생을 통해 그런 덕을 펼쳐냈다면, 결국 “그대는 그들의 희생자인 것”에 불과하다.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로 산 것이다. 인생말년에 허무해지는 그런 인생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삶 말이다.

가끔은 착한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상대방의 생각에 귀를 닫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명상에 빠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사람들은 근면한 사람을 착하다고 칭찬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칭찬을 통해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그런 칭찬을 통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청년”을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그 일하는 청년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타인을 위해 희생을 한 것으로 마음으로 보상을 받게 될 뿐이다. 마음으로. 마음으로만. 참으로 애매한 보상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못할 보상이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 가장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 희생을 바라보거나 그 희생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소중하고 고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스스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너무도 씁쓸하다. 타인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간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어간다.’ 그때 사람들은 “애석해 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일해주고 희생하던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착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덕에는 비이성적인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을 전체를 위한 기능으로 탈바꿈시킨다. 덕을 칭송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해로운 어떤 것을 칭송하는 것이고, 인간에게서 가장 고귀한 자기애와 자신을 지키는 최상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충동들을 칭송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을 목적으로 그리고 미덕을 지닌 습관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덕과 개인적 이익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덕의 효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맹목적인 근면이라는 전형적인 도구의 덕은 부와 명예에 이르는 첩경이며 권태와 정열을 치료하는 특효약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지니는 위험성, 그 최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92쪽 이후)

도덕을 옹호하는 입장은 도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뿌리를 박고 있다. 도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이념이다. 즉 자기 중심적인 전체적 사고방식이라고 할까. 군대식으로 말하면 상관의 생각이 곧 도덕이 된다. 상관의 말 한마디에 부대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

여줄 때 제일 편한 사람은 상관 자신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명령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한마디로 덕에는 비이성적인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을 전체를 위한 기능으로 탈바꿈시킨다.” 도덕적 의식을 통해 개인은 전체를 위한 소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도덕에 대한 니체의 공격은 날카롭다. “덕을 칭송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해로운 어떤 것을 칭송하는 것이고, 인간에게서 가장 고귀한 자기애와 자신을 지키는 최상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충동들을 칭송하는 것이다.” 도덕적 행동은 개인에게 해로운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전체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충동은 개인에게서 ‘가장 고귀한 자기애’와 ‘자신을 지키는 최상의 능력’을 빼앗아간다고 말한다. 도덕을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정신은 자기 안을 향하지 못하고 밖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의 이념으로 무장한, 그래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어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빠져 있다. 늘 밖으로 향한 시선은 남을 의식하며 주눅이 들어 있다. 자신에게 당당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맹목적인 근면성이 칭송받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으로 일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무대 위에 세우고 박수쳐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타라 불리는 그들이 있음으로써 대다수의 범인(凡人)들이 대리만족으로 위로를 얻으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도구의 덕은 부와 명예에 이르는 첩경이며 권태와 정열을 치료하는 특효약으로 제시된다.” 스타덤에 오른 어느 특정 인물은 회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아 챙긴다. 그 사실을 안 청소년들은 꿈을 키운다. ‘나도 연예인이 될 거야’라는 말을 희망 속에 담아 놓는다.

요즈음 대한민국은 아이돌 문화가 대세라고 한다. 소녀그룹만 해도 이백여 개의 팀이 활동 중이라고 한다. 그 팀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십 번의 오디션에 도전하기도 하고 또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시절을 감당해내기도 한다. 소위 대박의 꿈을 안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땀을 흘리며 일상을 훈련으로 채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지니는 위험성, 그 최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이것이 문제다. 대세 앞에서는 침묵하는 소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맹목적인 근면을 통해 형성되는 것은 사회인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이다. 가족이 원하고 집단이 원하는 인물이다. 타인이 원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혹은 대중이 원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그 노력의 산물은 무엇으로 주어질까? 그것이 “부과 명예에 이르는 첩경이며 권태와 정열을 치료하는 특효약”일지는 몰라도 그것에 의해 개인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 6.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나 자신일까? 아니면 타인에 의해 형성된 이념일까? 사회가 바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허무주의 철학이 던지는 최고의 질문이다. 니체가 ‘너는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서문에서 외쳤던 말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의 말을 들어보며 그를 철학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 서문에서 니체는 자유정신과 대화를 하

듯이 글을 써내려갔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감히 이렇게 물어보지를 못했다, "왜 그렇게 멀리 물러서 있는가? 왜 그렇게 혼자 있는가? 내가 숭배한 모든 것을 왜 포기했는가? 숭배 그 자체도 포기했는가? 자신의 미덕을 향한 이 냉정함, 악의, 이 증오는 무엇 때문인가?"라고 - 이제 그는 큰 소리로 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답을 이미 듣고 있다, "너는 너의 주인이며 동시에 네 자신의 미덕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다, 과거에는 미덕이 너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그 미덕은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너의 도구여야 한다, 너는 너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지배력을 터득하여 너의 더 높은 목적에 필요할 때마다 그 미덕을 붙이거나 떼내버리는 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다, (인간적I, 17쪽 이후)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자 한다. 삶은 자기 책임이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당연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이다. 이성적 존재의 한계다.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다. 일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자기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화들짝하고 놀라게 된다. 그때서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등의 질문에 숨이 막혀움을 느끼게 된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자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 누구의 눈치만을 보며 살아온 것이다. 후회해도 더 이상의 방책은 안 보인다. 현실을 알아도 길이 안 보인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정신이다. 허무주의의 이념이 아직 제대로 도래해주지 않은 것이다. 지금 아는 것은 아직 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다. 정신은 아직도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아주 긴 잠언을 하나 인용할 작정이다. 제목은 "국왕의 하루 일정"이라고 한다. 문학과 철학이 아우러진 문체다. 이것이야말로 니체 특유의 문체라고 생각된다. 이런 문체에 적응이 아직 덜 된 독자를 위해 긴장감이나 독서의 묘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미리 알려두고자 한다. 전반부, 아니 후반부 몇 줄을 제외하고는 잠언 전체가 꿈 이야기라는 사실이다. 니체는 이 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마음으로 독서에 임해보자.

국왕의 하루 일정, -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을 위해 우리는 아직도 휴식을 취하고 계신 자비로운 군주의 집무와 행사 일정을 잡아야한다, 오늘은 날씨가 그리 좋지 않다, 날씨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아예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참이다, 하지만 오늘의 집무와 행사를 원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장중하고 장엄하게 치를 것이다, 폐하의 혹시 병환이 드셨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조찬 때에 어제 저녁에 들어온 최신 소식, 몽테뉴 씨가 도착했다는 좋은 소식을 아뢴 예정이다, 결석증을 앓고 있는 몽테뉴 씨는 병환에 대해 유쾌한 농담을 할 줄 안다, 우리는 몇 명의 인물을 영접할 예정이다, (인물! 그 중 하나인 저 늙은 허풍선이가 이 단어를 듣는다면 뭐라고 말할지! "나는 인물이 아니야! 항상 사물 자체지!"라고 말하겠지.) 영접은 불편할 정도로 오래 걸리겠지만, 자기 집 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사람은 나를 향한 존경심을 보여주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내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는 저 시인의 일화를 이야기해야 할 이유가 충분할 정도로, 이 글은 예법에 맞게 무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마 이

시인은 자기 나름대로 무례해야 할 충분한 정당성이 있겠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시가 이 시인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는 많은 시를 짓기 위해 가능한 한 세상을 멀리하려 하는데, 이야말로 예절바른 무례에 대한 그의 감각을 보여주지! 반면에 군주는 항상 군주의 "시"보다 더 가치 있는 법이지, 비록 -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수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궁정 전체는 우리가 이미 일을 하면서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의 창에서 비치는 불빛보다 더 이른 불빛을 사람들이 보는 법은 없지, 들어봐! 종소리 아니야? 제기랄! 오늘 하루의 춤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일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즉흥적으로 할 수밖에, 세상 전체가 하루를 즉흥적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하루는 세상 전체에 맞춰 해보자고! - 이와 더불어 나는 기이한 새벽꿈에서 깨어났다, 아마도 특유의 둔중함으로 다섯 시를 알리는 종탑소리 때문이었으리라, 내게는 꿈의 신이 나의 습관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여겨진다, 나의 습관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나를 위해 정돈되고 견딜 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군주처럼 행해왔던 모양이다, (95쪽 이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읽어보자. "국왕의 하루 일정"은 어떤 어감으로 읽혀지고 있는가? 니체는 이 잠언을 "나는 이것을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군주처럼 행해왔던 모양이다"라는 말로 끝맺었다.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서 전해지는 느낌은 어떤 것인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군주처럼! 이 말은 지극히 부정적으로 읽혀진다. 국왕이 보내야 할 일정은 주체적인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 아니 너무 형식적이다! 형식적인 삶은 남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남을 위한 삶을 바로 그 남은 비웃고 있을 뿐이다.

국왕의 하루는 "집무와 행사"로 가득하다. 국왕이 어디 아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폐하는 혹시 병환이 드셨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신하는 없다. 그것은 하루의 일정에 반드시 행해져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하의 생각 속에 국왕은 그저 "늙은 허풍선이"에 불과하다. 그는 "나는 인물이 아니야! 항상 사물 자체지!"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군주는 항상 군주의 '시'보다 더 가치 있는 법"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접은 불편할 정도로 오래 걸리겠지" 하면서 귀찮은 속내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모든 관계는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상일 뿐이다. 남을 위한 행동이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며 일상을 견뎌낸다.

새벽 다섯 시를 알리는 종탑소리를 들으며 꿈에서 깨어난다. 의식의 경계 속에서 그 종소리는 "오늘 하루의 춤이 시작"되는 신호처럼 들려왔다. 하루의 일정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악몽이다. "오늘 하루의 춤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일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걱정이 태산 같다. 도대체 어떻게 또 하루를 버텨야 할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도 견뎌야 한다. 어떻게든 견뎌내야 한다.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즉흥적으로 할 수밖에. 세상 전체가 하루를 즉흥적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하루는 세상 전체에 맞춰 해보자고!" '으샤~ 파이팅!'을 외친다. 아니 최후의 발악이라고 할까. 마지막 힘까지 끌어 모으려는 안달하는 모습이라고 할까. 견디자! 살자! 살아보자! 하면서 악몽에서 깨어난 느낌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다. 매순간 즉흥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실수하면 생명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뎌도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칼 한번 잘못 떨어뜨려도 발등이 찍힐 수 있고, 유리문예 한번 잘못 부딪혀도 코뼈가 부러질 수 있다. 그것이 세상살이다. 웃으며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일상을 버텨야 할까? 즉흥적으로! 대안은 없다. 그저 즉흥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나는 기이한 새벽꿈에서 깨어났다.” 어떤 느낌이 남아있을까? 꿈꾼 뒷맛은 어떨까? 황홀? 흥분? 아니 그런 기분은 전혀 없다. 가슴이 뛰다. 불안해서 뛰고 있다.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을 뿐이다.

꿈은 깨고 이제 의식이 정신을 지배한다. 그러면서 니체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게는 꿈의 신이 나의 습관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여겨진다.” 습관처럼 살아가는 인생! 꿈의 신은 그것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꿈을 꾸게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것처럼 느껴진다. 꿈의 현실 속에서 가슴 조리며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정신을 바라보며 한 편의 희극을 보고 있는 양 그렇게 꿈의 신은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것처럼. 일상에 얽매어 있는 신하의 인생. 그의 인생은 국왕의 하루 일정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매순간 즉흥적으로. 그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의 습관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나를 위해 정돈되고 견딜 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견디며 사는 인생은 누구 것인가?

허무주의 철학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의혹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 전체를 허무주의라는 재판장에 세우고자 한다.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군주처럼 행해왔던” 모든 것을 심문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처벌하고자 한다. 눈물을 쏟아내는 오열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자 한다. 자기를 찾기 위한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았다. 한 순간의 황홀경을 맛보기 위해 긴 고통을 참아내는 것도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전제가 되듯이.

## 7. 남의 눈치만 살피는 겸손한 정신 vs. 세상을 등지고 삶을 향하는 정신

허무주의 철학은 자기 생각에 금지를 갖게 하고자 하는 철학이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정신을 노예근성으로 가르치고자 한다. “하루의 3분의 2를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노예이다.”(인간적, 284)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시간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면 허무주의적인 인간이다. 니체가 바라는 인간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한 그런 인생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음, 즉 인식을 얻을 수 없다.

인식을 위해 태어나지 않은 자, - 결코 드물지 않은 어리석은 겸손이 있다, 이런 겸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인식의 사도가 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새로운 어떤 것이 눈에 띄면 바로 그 순간 그로부터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한다, “너는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 네 감각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은 결코 진리일 리가 없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그것에 보다 예민하게 눈과 귀를 기울이는 대신 겁을 집어먹고 그 새로운 사물에서 달아나 가능한 한 서둘러 그것을 머리에서 내몰아버린다, 그의 내적인 규범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창조되었단 말인가? 낡은 진리만 해도 너무나 많은데,” (100쪽 이후)

깨닫기 위해 태어난 자는 다른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그 정신은 자유롭다. 그 어떤 것에도

엮매여 있지 않다. 그런 정신이 깨달음이라는 경지에 도달하게 해준다. 하지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그 이성 때문에 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성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도 말한다. 자유는 어쩌면 인간의 본성과는 상관이 없는 개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온갖 구속된 정신에 해방을 선사하고자 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한다. 어떤 때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길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하는 고독한 철학이다.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길을 혼자서 견뎌내야 한다. 자기 양심과 싸워야 하고, 자기 가치관과 싸워야 한다. 때로는 겸손이라는 미덕과도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겸손으로는 인식의 경지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겸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인식의 사도가 될 수 없다.”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정신으로는 허무주의적 인식의 사도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 긍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허무주의적 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해되는 모든 것은 허무주의 철학의 본령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 밖의 것에서 가치를 찾고자 한다. 겸손한 사람은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늘 과거에 엮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새로운 어떤 것이 눈에 띄면 바로 그 순간 그로부터 몸을 돌리고 이렇게 말한다. ‘너는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 네 감각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은 결코 진리일 리가 없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책하기 일쑤다. 늘 자기가 잘못이다. 남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이 찾고 있는 감각은 타인에 대한 감각일 뿐이다. 타인이 원하는 그 시각에 대한 감각일 뿐이다.

창작을 하고자 하는 정신과 겸손한 정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예술정신과 도덕관념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전자는 새로운 길을 후자는 익숙한 길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선구자가 되고자 하고 후자는 말 잘 듣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불편할 뿐이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그것에 보다 예민하게 눈과 귀를 기울이는 대신 겁을 집어먹고 그 새로운 사물에서 달아나 가능한 한 서둘러 그것을 머리에서 내몰아버린다.” 마치 불결한 어떤 것을 생각이라도 한 것인 양 불쾌해하면서. 겸손한 사람의 본성은 늘 이런 식이다. 남이 하라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의 내적인 규범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말인가? 낡은 진리만 해도 너무나 많은데.’” 전통만 해도 숨이 차다는 얘기다. 배울 게 너무 많다고 불평이다. 새로운 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통, 도덕, 과거의 가치 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적 질문이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국왕의 하루, 무대 위에 올라선 슈퍼스타의 언행,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바라며 평생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나게 될까? 돈? 명예? 니체가 현대인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모든 것이 바로 삶이라는 큰 강물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삶이란 무엇인가? - 삶, 그것은 죽음에의 의지를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내치는 것을 의미한다, 삶,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약하고 노쇠한 모든 것에 대해 잔혹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 결국 그것은 죽어가는 것, 고통받는 것, 노쇠한 것에

대한 경건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는 살인자가 아닐까? 하지만 높은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101쪽)

허무주의 철학은 살인의 원칙이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에 반해 도덕주의의 이념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일관한다. 살인하라와 살인하지 말라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살인자가 아닐까?”라는 말은 니체의 주장이 내포되어 있는 수사학적 질문일 뿐이다. 끊임없는 살인자라는 얘기다. 무엇이? 삶이! 삶은 살인자다. 이것이 허무주의의 논리다. 그렇다면 무엇을 죽이라는 것인가? 그것은 “죽음에의 의지”이다. 살고자 한다면 삶에의 의지를 키워야지 죽음에의 의지를 키우면 안 된다. 그것은 허무주의의 이념이 아니다. 허무주의 철학은 오로지 삶에의 의지만을 지향할 뿐이다.

삶은 살인의 원칙이다. 삶은 살인자가 되어야 가능하다. 살고자 하면 죽여야 한다. 죽음을 죽여야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죽여야 한다. 죽음 이후에 대한 내세관을 죽여야 한다. 죽음이 죽음이 아님을 깨닫게 해야 한다. 허무주의 철학이 넘고자 하는 가장 큰 능선이다. 죽음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능선이요 산이다.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성적 존재가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현상의 논리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한다면 이 불가능에 도전해야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에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 허무가 극복되는 쾌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을 등진 자, - 세상을 등진 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그는 보다 높은 세계를 추구한다, 그는 모든 긍정의 인간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고자 한다, 그는 이 비상을 무겁게 하는 많은 것들을 내버린다, 그중에는 그에게 가치 있고 그가 사랑하는 것들도 있다, 높이에 대한 열망으로 이것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에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이러한 희생, 이러한 내던짐뿐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에게 세상을 등진 자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세상을 등진 자로서 그는 두건과 낙타 털옷으로 몸을 두른 영혼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가 우리에게 미치는 이러한 효과에 그는 아마도 만족할 것이다, 그는 우리를 넘어 날아가려는 자신의 열망, 금지, 의도를 우리에게 숨기려 한다, 그렇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명하며 우리에게 친절하다, 그는 긍정의 인간이다! 그가 세상을 등진다고 해도 우리와 똑같이 그는 긍정의 인간이다, (101쪽 이후)

세상을 등진 자는 긍정의 인간이다. 세상을 등짐으로써 무엇을 긍정한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위의 잠언은 이해가 된 것이다. 등짐과 긍정의 관계, 이것을 이해했다면 위의 잠언을 이해한 것이라는 얘기다. “세상을 등진 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이 질문부터 답을 내놓아보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에 등을 지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수많은 것을 희생시킨다. 그 중에 자신에게 “가치 있고 그가 사랑하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희생, 이러한 내던짐”을 통해 얻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등지면서 긍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잠언의 첫 부분부터 언급이 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자, 즉 “그는 보다 높은 세계를 추구한다.” 세상을 등짐으로써 보다 높은 세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세상에 등지는 것을 요구한다. 그 등짐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도 보다 높은 세계를 말이다. “그는 모든 긍정의 인간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고자 한다.” 비상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시선은 쇠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마냥 먼 하늘을 향하고 있다. 하늘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자 한다. 운명이라 여겨졌던 모든 것과 싸움을 벌이고자 한다. 하늘의 뜻 따위는 굴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뜻에 맞서 삶에의 의지로 충만한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한다.

## 8. 즐거운 노동과 권태 사이의 줄타기

직업은 현대인의 일상을 형성해준다. 그래서 “직업은 삶의 척추이다”(인간적I, 414쪽)라고 말하는 것이다. 직업 없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살고자 한다면 직업은 가져야만 한다. 진정한 삶은 오로지 직업의 존재여부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삶과 직업의 종속관계 속에 있다. 직업은 삶의 척추일 뿐이다.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러한 인식이 서야 한다. 삶은 직업이 바르게 세워야 할 대상이다. 직업을 위해 삶이 존재하는 형식을 띄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직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삶이 척추노릇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다.

직업을 피해갈 수 없다면 직업은 지해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지해롭게 직업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직업이 만들어내는 일상은 삶이라는 형식으로 제시된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직업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일상이 즐거워야 삶이 즐거운 것이다. 일상이 권태로우면 삶이 권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일상과 삶은 늘 함께 하는 동반자와 같다. 어느 하나를 저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할 수는 없다.

앞서 세상을 등지는 지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거기서 니체는 등지는 것 자체가 허무주의의 이념이 아님을 가르쳤다. 등짐으로써 긍정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가르쳤다. 긍정은 바로 삶이다. 삶을 긍정하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고독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독에의 능력이 부족할 때 타인의 존재여부에 의존하는 삶의 형태가 나타나고 만다. 외부의 것에 의존적인 삶은 결코 스스로가 주인인 그런 삶을 펼치지 못한다. 늘 임마누엘을 염원하며 신앙을 통해서만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존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의 잠언을 읽으며 현대인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자.

일과 권태, - 보수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문명화된 나라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다, 그들 모두에게 일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을 선택함에 있어 섬세하지 못하다, 그 일이 많은 수입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하지만 일의 즐거움 없이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물락하기를 바라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이 까다롭고, 만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일 자체가 모든 이득 중에 가장 큰 이득이 아니라면 많은 금전적 이득은 아무 소용이 되지 못한다, 모든 예술가와 사색가가 이런 드문 종류의 인간에 속한다, 그러나 그 외에 자신들의 삶을 사냥이나 여행, 혹은 연애와 모험에 바치는 한가로운 사람들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 모두는 그 일이 즐거움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일과 어려움을 원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밖의 경우에는 단호하게 나태를 택한다, 심지어 가난, 불명예, 건강과 생명의 위험이 그 나태와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권태보다도 기쁨 없는 일을 더 두려워한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일의 성공을 위해 권태를



필요로 한다. 사상가와 창조적인 정신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권태는 순조로운 항해와 즐거운 바람에 선행하는 유쾌하지 못한 영혼의 “무풍 상태”이다. 그는 이것을 견뎌내면서 그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범속한 천성을 지닌 사람들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수단을 다해 권태를 몰아내려 하는 것은 기쁨 없이 일하는 것만큼이나 천박한 짓이다. 보다 오래, 보다 깊게 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인들은 유럽인들보다 뛰어나다. 심지어 그들의 아편조차도 유럽의 독약인 알코올의 역겨운 신속함과 비교해보면 느리게 작용하고 인내를 요구한다. (112쪽 이후)

어떤 이는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마치 글을 읽다가 자기 얘기를 발견하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면서 참견하고 싶은 욕망이 들게 되는 부분이다. 유럽인이 아시아인을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누구 편에 서서 니체의 글을 읽으려 하지 말자. 그가 하고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는 아시아인들에게서 느림의 문화를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아편조차도 유럽의 독약인 알코올의 역겨운 신속함과 비교해보면 느리게 작용하고 인내를 요구한다.” 니체의 철학은 생철학이다. 삶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는 “정신의 압제자들”(아침, 405쪽)의 처방은 거부한다.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그리고 근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변화를 선호한다. 진정한 건강회복을 위해 지름길보다는 우회로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른바 ‘지름길들’은 항상 인류를 큰 위험에 빠뜨렸다”(아침, 66쪽)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가르쳐주는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다. 가끔은 너무도 멀리 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러면 “이 철학 전체는 그것의 모든 우회로와 함께 어디로 가려 하는 것인가?”(아침, 413쪽)하며 불안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회로는 새내기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만 하는 훈련소와 같다. 훈련소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이다. 인생의 문제는 느리게 해결될수록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

니체가 동양의 처방에서 주목한 것은 “느리게 작용하고 인내를 요구”하는 방법이었다. 양약과 한약의 차이처럼 서양의 방식은 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반면에 동양의 방식은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은근하고 느리다. 바로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병은 없을 수 없다. 인생 그 자체가 병과 함께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삶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싯다르타도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으로 6년간의 고행을 견뎌냈던 것이다. 즉 병에 대한 인식이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게 해주었다는 얘기다.

일상과 관련하면 이 병에 대한 현상은 권태와 비교될 수 있다. 권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권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권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르게 채워질 수 있다. 권태에 대한 인식은 일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권태는 소극적인 개념이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조금 적극적인 의미가 가미된 개념이라면 나태가 있다. 나태함은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일상에서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삶 혹은 일에 대한 열정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까지 미루는 게으름은 어디서든 환영을 받지 못한다.

권태와 나태를 넘어 보다 더 적극적인 휴식 상태도 있다. 소위 일에 대한 미련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는, 즉 양심의 거리낌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휴식 상태가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한가(閑暇)다. 한가한 사람은 할 일이 특별히 없는 사람이다. 권태와 나태를 넘어 한

가까지 이끌고 갈 수만 있다면 일상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열정을 다해 일을 하다가도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만 있다면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일을 할 때도 안달하며 매달리지 않는 여유가 삶의 대가를 알려주는 징표가 된다. 자신의 힘의 “4분의 3의 힘”(인간적Ⅱ, 74쪽)만 사용하고도 일을 해결해내는 그 능력이 달인의 모습인 것이다. 4분의 1의 힘은 보여주지 않아도 될 때 그 일은 아름답게 보인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표정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죽을 듯이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다. 춤을 출 때도 완벽한 동작은 숨겨둔 여유분의 힘이 느껴질 때 완성된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이처럼 여유롭지가 못하다. 매순간 최선을 다 한다. 정신이 없다. 모두가 돈이 흐르는 곳으로 몰려든다. “보수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오늘날 문명화된 나라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동일하다.” 세기 전환기를 보냈던 니체는 이미 현대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돈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만큼 현대적인 이미지는 또 없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개념들만 모아보아도 현대인의 병이 보인다. ‘인문학 위기’는 높은 ‘연봉’을 추구할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현대인과 직업의 관계는 오로지 돈뿐이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을 선택함에 있어 섬세하지 못하다. 그 일이 많은 수입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좋은 직업을 선택하면서 또 좋은 직장에 가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 ‘이곳은 월급을 많이 안 준다’는 말이 겸손이나 겸양의 표현처럼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일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밖에 없다. 이것이 현대인의 병이다. 치료가 되어야만 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질병은 인식의 수단”(인간적Ⅰ, 14쪽)이라고 했다. 보수, 월급, 연봉, 돈 등 개념이 무엇이 되었든간에 현대인의 병을 통해 인식의 단계까지 도달하고 싶으면 바로 이런 개념들과 한바탕 씨름을 해야만 한다. 돈이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물론 돈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니체도 인정했다. “돈도 약간은 중요”(인간적Ⅱ, 178쪽)하다고. 하지만 돈에 연연할 때 삶은 여유를 잃고 만다. 맛난 식사를 하고 난 뒤 드넓은 푸른 초원을 침대 삼아 누워 있을 수 있는 사자의 자태에서 한가함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이때가 되면 “정신이 훨씬 더 중요”(같은 곳)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권태, 나태, 한가 등 다양한 순간에 대해 인간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은 오직 돈뿐이다”(인간적Ⅱ, 178쪽)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 있어야 한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현대인의 삶과는 차이를 보이는, 즉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자 애를 쓴다. “하지만 일의 즐거움 없이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몰락하기를 바라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건강이 허락되는 것이다. 건강이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행복은 건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엄연한 진리다.

허무주의 철학이 가지는 일에 대한 생각은 단호하다. “일 자체가 모든 이득 중에 가장 큰 이득이 아니라면 많은 금전적 이득은 아무 소용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 자기 말이 될 때까지 되뇌어야 한다. 감각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다! 그것도 “즐거움 없이 일하기보다는 차라리 몰락하기를 바라는” 자가 원하는 일이어야 한다. 일이 즐거움을 선사해준다면 일을 하면서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마치 공부가 재밌으면 그것이 공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를 할 것이다. 노는 것이 제일 재미있다고 말하듯이 공부가 제일 재미있다고 말하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일도 그런 종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일이 재밌으면 삶은 덩달아 춤도 춰준다.

일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일이 재밌을 때에만 일을 한다. 이런 사람들의 예로 니체는 “모든

예술가와 사색가” 또는 “자신들의 삶을 사냥이나 여행, 혹은 연애와 모험에 바치는 한가로운 사람들” 등을 꼽는다. “이들 모두는 그 일이 즐거움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일과 어려움을 원한다.” 일이 재미없을 때 일을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지만 일이 재미있다면 그 일이 어렵건 위험하건 상관하지 않는다. 모험이라도 감행한다. 사지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이 재미를 동반하지 않을 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범인(凡人)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며 살아간다. 즐거운 학문을 하고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다. ‘공부가 재미있니?’라는 질문은 대체로 스스로 공부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공부의 재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공부를 즐길 것이다. 함께! 마치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에 동참하듯이 그렇게 재밌게 공을 차면서 뛰놀 것이다.

그러나 지치면 휴식 시간을 가질 것이다. 더 이상 뛰어봤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단호하게 나태를 택한다. 심지어 가난, 불명예, 건강과 생명의 위험이 그 나태와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도 휴식이 필요하다. 더 이상 해봤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일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더 이상 일이 재미없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일을 중단할 줄 알아야 한다.

니체가 현대인에게 권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움이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즐거움이 없는 학문에 대한 두려움! 그런 공부에 대해서는 소스라치게 놀랄 줄 알아야 한다.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보다도 기쁨 없는 일을 더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해야 허무주의 철학이 재밌어진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일의 성공을 위해 권태를 필요로 한다.” 권태, 나태, 한가 등이 있어야 일에 대한 열정도 불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의 성공을 위해 권태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바로 이때 요구되는 것이다. 허무가 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용기! 그것만 있으면 세상만사가 다 재밌게 느껴질 것이다.

“권태는 순조로운 항해와 즐거운 바람에 선행하는 유쾌하지 못한 영혼의 ‘무풍 상태’이다. 그는 이것을 견뎌내면서 그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허무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 허무가 새로운 불꽃을 위한 씨앗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끝까지! 이 말은 염세주의 철학을 다룰 때에도 자주 사용했던 말이다. 그때는 특히 불교의 사바세계(娑婆世界)와 연결시키며 다뤘던 말이다. 이 세계는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세상”<sup>4)</sup>이란 뜻이다. 이런 이념은 허무주의 철학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견뎌야 한다! 끝까지! 그 끝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롭게 거듭나는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끝까지! 그곳까지 가기 위해 권태도 나태도 한가도 다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니체는 권태를 일컬어 영혼의 무풍 상태라고 했다. 한 치도 전진할 수 없을 때 안달하지 말고 그 상태를 한가롭게 즐길 줄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바람이 불어줄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것이 삶의 원리인 것이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떠났던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 준다. 그런 믿음이 삶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 신성한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자는 이런 믿음의 자식이다.

4) :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 위의 책, 211쪽.

## 9. 즐거운 학문에 기초한 허무주의적 행복론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도 행복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허무주의적 행복은 어떤 것일까? 니체는 행복을 언급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연결시키는 철학자가 하나 있다. 그는 바로 에피쿠로스(Epikouros(ca. 341-271))이다. 니체에게 이 철학자는 사소한 것으로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치의 철학자”(인간적II, 345쪽)였다.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질풍노도기를 극복하고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을 때 괴테는 자신의 기행문의 부제로 <나 역시 아르카디아에서!><sup>5)</sup>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펠로폰네소스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르카디아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풍경으로 유명했다.<sup>6)</sup> 고대인들은 온갖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행복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곳, 즉 이상향으로 꿈꾸기도 했던 곳이다.

“나 역시 아르카디아에서!” 이 말을 니체도 알고 있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2권 295번 잠언의 제목으로 바로 이 말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음을 글로 표현해낸다. “모든 것이 정적과 저녁의 충만함 속에 있었고 시계는 다섯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 모든 것은 커다랗고 조용하고 밝았다.”(인간적II, 405쪽 이후)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다. 이 행복의 순간에 에피쿠로스를 만난다. “즉 영웅적이고 목가적인 종류의 철학함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가 있었던 것이다.”(같은 책, 406쪽) 시대를 달리한 천재, 하지만 그를 독서를 통해 만나게 되는 순간, 그 감회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한 철학자였다. “‘죽음 이후’는 우리에게 더 이상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좋은 일로서 널리 느껴지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제 에피쿠로스가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된다!”(아침, 84쪽) 니체의 예언이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중세적 믿음이었다. 아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피타고라스(Pythagoras(ca. 570-510))조차도 “젤렌반더룽(Seelenwanderung)”<sup>7)</sup>, 즉 영혼의 윤회 내지 영혼불멸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중세적 발상에는 부활 때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는 천국에 올라가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했다. 도대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니체는 에피쿠로스와 함께 신비롭게 베일에 싸여 있던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에피쿠로스, - 나는 에피쿠로스의 성격을 여느 사람들과 다르게 느끼고 있고, 내가 그  
에 관해 듣고 읽는 모든 것에서 고대 오후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나는 저 먼 하얀 바다 위 태양이 떠 있는 하얀 절벽 위에서 그의 눈을 본다, 크고  
작은 동물들이 그 햇빛 아래에서 이 빛과 저 눈처럼 침착하고 조용히 유희를 즐기고 있  
다, 그런 행복은 오직 끊임없이 번민하는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현존재의 바다가 그  
앞에서 고요해지는 그런 눈, 다채롭고 우아하면서도 두려움을 주는 바다의 표면과 피부

5) Goethe: Italienische Reise. Mit Zeichnungen des Autors, hg. v. Christoph Michel, Frankfurt am Main 1976, 9 ; “Auch ich in Arkadien!”

6) 참고, <https://de.wikipedia.org/wiki/Arkadien>

7) Ernst von Ast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Stuttgart 17/1980, 42쪽.

를 입증내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의 행복, 그 이전에 이런 겸손한 열락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114쪽 이후)

오후의 행복! 에피쿠로스에게 오후는 행복감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시간이다. 오후는 정오 이후의 시간이다. 정오는 특히 위대한 판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낮잠을 자는 평온한 시간이다. "자연의 모든 사물은 그와 함께 잠들었다. 얼굴에 영원이라는 표정을 나타내면서." (인간적II, 410쪽) 정오를 지나 오후로 이어지는 시간은 영원하다. 모든 순간들이 영원이라는 그물에 걸려 있다. 위대한 판이 잠을 자고 있다! 그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한때 니체는 "'위대한 판이 죽었다'라고 애절하게 외치는 소리" (비극, 89쪽)를 듣고 비극의 탄생을 염원하기도 했다.

"활동적이고 폭풍이 잦은 삶의 아침" (인간적II, 410쪽)을 지나 "삶의 정오 무렵" (같은 곳)이 다가오면 영혼은 평온을 되찾는다. 참고 견디면 이런 순간이 오게 마련이다. 위대한 판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랑했던 사람은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다. 잠시 곁을 떠나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판이 팬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피터 팬으로 말이다. 이런 인식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성스러운 웃음을 짓게 해준다.

오후를 맞이하며 니체는 에피쿠로스의 눈을 마주한다. "나는 저 먼 하얀 바다 위 태양이 떠 있는 해안 절벽 위에서 그의 눈을 본다." 에피쿠로스의 눈이다. 위대한 판이 잠에서 깨어나 활짝 뜬 눈이다. 눈부시도록 해맑은 눈빛이 펼쳐진다.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운 청명한 눈빛이다. 얼마나 가슴이 설렘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전율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 눈빛 아래 삼라만상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은총의 눈빛이다. 태양의 눈이다. 오후의 눈이다. 네버랜드로 인도하는 피터 팬의 눈빛이다.

"크고 작은 동물들이 그 햇빛 아래에서 이 빛과 저 눈처럼 침착하고 조용히 유희를 즐기고 있다." 이 빛과 저 눈! 둘은 닮았다. 동물들이 보여주는 눈빛조차 이 빛과 저 눈처럼 침착하고 조용하다. 평정 속에서 유희를 즐기고 있다. 마치 높이 날아오른 알바트로스가 날갯짓 한번 하지 않고도 비상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 행복은 오직 끊임없이 번민하는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 행복은 불행을 아는 자만이 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자는 기나 긴 불행의 터널을 통과해낸 자이다. 행복감은 그런 자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이다.

"현존재의 바다"! 니체가 바다니 사막이니 하면서 고독의 현장 혹은 허무주의적 상황을 연출해낼 때, 그곳은 바로 현존재의 상황을 의미한다. 현존재의 상황은 바다와 같다. 항해를 거듭해야 하는 곳이다. 멈출 수 없는 곳이다.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다. 권태에 짓눌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 오히려 권태를 동력의 원인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생명의 의미는 살아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법이다.

니체는 "현존재의 바다가 그 앞에서 고요해지는 그런 눈"은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 이전에 이런 겸손한 열락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니체의 자유정신이 최초라는 얘기다. 현존재 앞에서 고요와 평정을 유지하는 그 눈은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 탄생시키는 초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위버멘쉬가 존재한 적은 아직 없다." (차라, 153쪽) 현존재의 바다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눈빛! 생로병사의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자유정신의 진면모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아침놀과 "활동적이고 폭풍이 잦은 삶의 아침" (인간적II, 410쪽)을, 즉 요동치는 불안한 아침을 맞이했다. 그리고 정오를 넘어 오후로 달리고 있다. 삶은 즐거운 학문을 하며

무한한 행복에 젖어 있다. 이제 현존재는 그것이 아무리 죽음으로 마감한다고 협박을 해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오는 위대하다. “위대한 정오란 사람이 짐승에서 위버멘쉬에 이르는 길 한가운데 와 있고, 저녁을 향한 그의 길을 최고의 희망으로 찬미하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그 길이 곧 새로운 아침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다.”(차라, 131쪽) 자유정신은 몰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몰락은 또 다른 아침을 준비하는 순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을 닮은 오후의 눈은 에피쿠로스의 행복의 눈이다. 현존재의 바다 앞에서 위대한 모험 여행을 다짐하는 눈빛이다.

삶은 여행이다. 바다 여행과 같다. 행복은 육지를 발견할 때 완성된다. “우리의 행복은 조난당한 자의 그것과 유사하다. 육지에 닿아, 낯고 확고한 대지 위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경탄하는 것이다.”(115쪽) 대지는 태곳적부터 존재해 왔었다. 이곳을 무시하고 말로만 설명될 수 있는 먼 곳, 즉 천국의 땅을 동경했었다. 죽음 이후에 자기 인생을 담당해줄 신을 요구했었다. 이제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때다. 쇠사슬을 끊어내고 먼 하늘을 반향적으로 바라보는 프로메테우스의 눈빛을 닮아야 할 때다.

프로메테우스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 간이 파먹히는 고통을 견뎌냈다. 삼 년이 되었던 삼천 년이 되었던 세월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그는 현존재의 바다를 사바세계처럼 견뎌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끝까지”(112쪽) 기다렸다. “‘고통’에 대한 처방은 고통이다.”(118쪽) 운동하다 다친 근육은 운동으로 풀어야 제일 좋다. 사랑이 남긴 상처에는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다. 생로병사가 두려워 죽음 이후를 걱정했다면 이제는 바로 그 생로병사 자체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 대지는 흔들림 없이 존재해왔다.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존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경탄하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영화 《장미의 이름》(1986)의 한 장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눈먼 장님 호르헤 수도사.

눈이 태양을 닮지 않으면 망상이 생겨난다. 모든 것을 밝히지 못하면 어둠이 엄습한다. “선이 시작되는 곳”이란 제목의 잠언 하나가 이에 대한 경고를 한다. “약한 시력이 약한 충동의 세련된 모습으로 인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에 인간은 선의 왕국을 설정한다.”(120쪽) 이곳을 신의 왕국이라 부르던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부르던 상관없다. 그 왕국은 어쨌거나 약한 시력이 현존재의 바다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눈이 무뎌수록 선의 범위는 넓어진다!”(같은 곳) 영화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늙은 수도사 호르헤처럼 아예 눈먼 장님이 천국을 바라본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불행을 벽에 그린다.”(123쪽) 쓸데없는 망상이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자아낸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같은 곳) 경우에 따라서는 신도 필요로 한다. 임마누엘을 신의 이름이라 부르면서 그를 동경한다. 함께 곁에 있어줄 존재를 신의 속성으로 간주하며 그를 염원한다. 하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이에 저항하고자 한다. 비록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런 허상과 망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자 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용서하시라! 나는 나의 행복을 벽에 그리고자 한다.”(같은 곳) 허무주의라는 철학의 벽에는 행복만을 그려놓고자 한다. 다만 그 행복의 빛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렘브란트 Rembrandt(1606-1669)의 그림처럼 배경 전체를 어둠으로 그려놓을 수는 있어도 주제는 행복임을 잊지 말자. 행복한 그림, 그 그림이 허무주의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임을 명심하자. 허虛! 무無! 그것은 삶이다. 그것도 행복한 삶이다.